

교환학생 체험후기.

1. 비자 관련 : 영사관 인터뷰는 서류 준비할 것도 많지만 촉박하게 신청하면 원하는 날짜에 인터뷰가 꼭 차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원하는 날짜를 일찍 선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노쇼한 경우에 추가요금 없이도 2번까지 더 기회를 준다고 하니, 혹시 급박한 사정으로 인터뷰를 못 보게 되신 분들은 너무 좌절하지 말고 차근차근 다음 날짜를 잡아 준비하도록 합시다. (제가 한번 놓쳤다가 다시 봤습니다. ㅎㅎ)

인터뷰 자체는 물론 영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압박감있는 인터뷰는 아닙니다. (우리의 경우 본국으로 돌아와서 충남대에서 마지막 학기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영사들은 불법장기체류의 가능성이 낮다고 기본적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기본적 대화가 힘든수준의 영어실력이 아니면 퇴짜를 맞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터뷰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필요한 서류를 여러 번 점검하여 빠진 서류가 없도록 준비하도록 합시다. 준비서류 미비는 거의 무조건 퇴짜입니다.

서류 몇장 준비한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준비해야할 서류가 굉장히 길고 복잡하고(짜증나고), 결제때문에 하루 이틀 밀릴수도 있고... 변수가 많습니다. 다시한번 미리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거주 관련. (UC Riverside)

우선 기본적으로 제가 있었던 UC Riverside의 경우에는 기숙사와 홈스테이 2가지 거주옵션이 있었습니다. 가격상 큰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둘다 비쌉니다. ㅎㅎ)

2-1 기숙사.

기본적으로 한국의 기숙사보다는 자유로웠습니다. 명칭만 기숙사일 뿐 사실상 아파트에 가까운 수준으로 자유로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거주하는 방에 Underage만 없다면 파티나 음주 등이 가능하고 사생간 서로 방 이동, 활동이 자유롭습니다. 너무 밤 늦게 왁자지껄 떠드는 것만 아니면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기숙사가 홈스테이에 비해서 언어교류의 기회가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숙사에서 한국 학생들과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면 오히려 자유롭기 때문에 언어교류의 기회는 충분합니다. 후술하겠지만 홈스테이의 경우, 오히려 같은 나이대의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기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아가 학교시설과 거주시설이 가까워 기본적으로 생활 자체가 편리합니다. (홈스테이인데 중요한 물건을 집에 놓고 왔다면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다만 기숙사 구내식당이 없고 근처 Extension center의 구내식당은 아침, 점심만 하기 때문에 식사에 관련해서 돈/노력이 더 들어간다는 단점은 존재합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외식하려면 돈이 꽤 듭니다. (빅맥세트 8달러대, 간단한 쌀국수 한그릇 11달러정도...) 따라서 사실상 매번 저녁을 시켜 먹거나 나가서 먹는다면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녁은 주로 룸메이트와 같이 요리해 먹었습니다. 사람 손을 거치지 않은 식자재 가격(특히 고기류)은 한국에 비해 저렴한

것이 많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가서 요리가 많이 늘었습니다. ㅎㅎㅎㅎ)

2-2 홈스테이 (제가 직접 살아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부 잘못된 내용이 있을수 있습니다.)

홈스테이의 경우, 기본적으로 식사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편입니다. 또한 실제 미국 가정의 생활을 겪어볼 수 있고, 생활을 위해서라도 (강제적으로) 영어가 늘게 됩니다. 기숙사의 경우 노력하지 않으면 영어가 늘지 않지만 홈스테이는 자연스럽게 늘게 됩니다.

다만 홈스테이의 경우 거주하는 가정이 학교로부터 걸어서 갈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거리개념이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르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차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교환학생으로서 차 없이 생활해야하는데에는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미국의 대중교통은 한국에 비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등 하교시 같이 거주하는 가정에서 차로 태워다주게 되는데, 저녁이후 늦은 시간에 차로 바래다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폐이므로, 수업이 끝난 후, 외국인 친구들의 저녁파티등에 참가하려면 개인적으로 우버를 이용해야합니다. 많은 사교행사가 주로 저녁때에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아쉬움이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룸메이트 및 같은 집에 거주하는 학생들과는 매우 친해질 수 있습니다.

3. 학업관련

수업의 경우 크게 본교(전공)수업과 Extension 수업 2가지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기준으로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경우 매우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3-1 본교수업

UC Riverside 본교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으로 기본적으로 신청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우리의 경우 Visiting student 신분이기 때문에 본교 학생들이 신청과 철회를 모두 끝내고 남은 공석이 있는 수업에 한해 참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이 시작되고 거진 1달이 지난 후에야 수업에 정식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 OT때 교수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정식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우선 수업을 들은 후 정식등록절차를 밟게 됩니다. 1달정도 수업을 듣다가 인원이 다 차서 등록을 못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인원이 여유있는 수업을 골라 교수의 확답을 받아놓는게 베스트이지만, 인원이 다 찼어도 수업등록을 허락해 주는 경우도 꽤나 있으므로 교수와 많은 이야기를 나눈 뒤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UC riverside의 경우 본교 관계자까지도 굉장히 빡빡한 학점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정도이므로 중요과목의 경우 대부분 인원이 차게 됩니다.)

평가방식은 수업계획서에 특별히 언급된 것이 아니면 모두 절대평가입니다. 느슨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보통 과제를 많이 출제하시기 때문에 고득점을 원하신다면 많이 노력하셔야 합니다.

3-2 Extension 수업

본교가 아니라 Extension center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수업으로 과목의 종류가 매우 많고, 신

청인원이 너무적어 폐강되는 것, 혹은 전문가들을 위한 강의만 아니면 수강하는데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과목들이 Business 혹은 Marketing 계열로 많이 치중되어있어 자연계열, 공대계열 학생들은 원하시는 과목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본교 수업이 없는 저녁 6시 이후에 많이 진행되며 수업 부담은 본교 수업에 비해 굉장히 적은편입니다. 완전 온라인 강의도 많습니다. 따라서 본교에서 원하는 수업에 신청해본 후, 인원등의 문제로 본교수업이 거절되게 되면 남은부분을 Extension 강의로 채우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교환학생 비자 신분을 유지하려면 쿼터당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론 위주의 수업보다는 실습 위주의 수업이 많습니다. 제가 들었던 Marketing 수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마케팅활동을 Facebook 등에서 해보는 경우도 있었고 영상편집등을 실제로 해보는 강의도 있었습니다.

4. 날씨 관련

날씨 정말 좋습니다. 한여름에는 매우 덥다고 하지만 제가 갔던 학기는 Winter quarter였고, 우리나라 가을날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도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두꺼운 옷 보다는 쌀쌀한 밤에 걸칠수 있는 외투 정도만 가져오셔도 충분할 듯합니다.

5. 생활 관련

기숙사에 Gym 이 있지만 시설이 많이 열악합니다. 대신 본교에 gym이 있는데 시설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수영장, 테니스, 암벽등반, 피트니스, 실내 농구 등, 웬만한 스포츠활동이 다 가능합니다. 단, 본교의 gym은 한달단위로 추가요금을 내고 이용하셔야 합니다.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그 값을 합니다. 요가클래스 수영클래스 등 여러가지 클래스도 열린다고는 들었지만 직접 들어보지는 않았습니

다. 휴대폰은 보통 선불sim카드를 많이들 구매하는 편입니다. 이 경우 친구와 같이가서 등록하는경우 묶음 세일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잘 알아보면 싼 가격에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경우 1달에 40불정도, 데이터 무제한 T-mobile 사용했었는데,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신 후, 근처 모바일샵을 방문하셔도 되고, 공항에서 개통하는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교에 큰 cafeteria가 있는데 중식, 일식부터 서브웨이, 카페까지 있습니다. Extension center의 구내식당을 이용하는것에 지치셨다면 본교식당을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맛있는 음식이 많습니다.

6. 준비물 관련

우선 가면 얇은 담요 및 베게는 지급됩니다. 하루이틀 지내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오래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므로 월마트에서 이불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압축포장해서 이불을 챙겨왔지만,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고 기숙사에 도착하신 뒤, 룸메이트나 룸메이트가 없다면 오티에서 만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서 우버를 이용해 월마트에서 장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누 같은 세면도구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기본적인 세면도구나 샴푸 등은 챙겨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몇일간은 얼떨떨해서 장보는 것도 잘 감이 안잡히실 수 있기에 처음 몇일간 먹을 간단한 라면, 핫반정도 챙겨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전자레인지와 가스레인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커피포트는 없지만 먼저 와서 지내고 있는 룸메이트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압기는 3개이상 챙겨오시는 것이 좋고 (미국에서 110v>220v 돼지코 구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필기구는 가격대비 성능이 그닥 좋지 않기에 필기구정도 챙겨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7. 사교 관련

UCR 에는 국제학생들끼리 모여 만든 학생회 (인스타그램 isu.ucr) 한국인 학생회인 한누리학생회, 등 우리가 참가할 수 있는 많은 학생회가 있습니다. 저는 수업시간상 가보지 못했지만, isu.ucr에서 매주 여는 coffee hour나 한누리학생회에서 비정기적으로 모임을 개최하고 있으므로 사교활동이 필요하시다면 이런 활동도 매우 좋습니다.

8. 여행관련

아쉽게도 바로 근방에 유명한 여행지는 찾기 힘듭니다. 그러나 megabus나 flibus 와 같은 버스 사들이 주변 관광지, 특히 LA 쪽으로 저렴한 가격에 노선을 운영하므로 이 버스를 이용하시면 uber를 이용하지 않고도 부담이 적게 여행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cocoon1960@naver.com 으로 메일주세요